

정유기업, 3/4분기 경영실적 부진

삼성증권, 부진폭이 개선폭보다 커 ... 석유화학제품 강세는 긍정적

삼성증권은 10월18일 정유기업들의 3/4분기 실적이 2/4분기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가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을수 애널리스트는 “2/4분기 후반부터 시작된 BTX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강세가 3/4분기에도 이어지며 정유사업의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적으로 정유부문의 부진 폭이 화학사업의 개선 폭보다 깊어 SK와 S-Oil, GS칼텍스 등 정유기업 3사 모두 3/4분기 실적은 2/4분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3사의 3/4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6782억원으로 2/4분기보다 3.7%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정유산업의 수급구조는 여전히 양호해 비중확대 의견을 하향 조정할 상황은 아니며, 특히 마진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병커C유와 나프타의 원유대비 스프레드가 최근 유가하락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SK의 목표가를 종전 8만9000원에서 8만7000원으로, S-Oil의 목표가를 7만2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각각 낮추고, GS칼텍스의 지주회사인 GS도 종전 3만9800원이던 목표가를 3만87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수 기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8>